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19일, 충북 충주종합운동장에서 공연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중심의 어울림’ 전국체전 오늘 개막



충주서 7일간 대장정...광주 13위·전남 12 목표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20일 ‘중심의 어울림’을 주제로 하여 새롭게 펼쳐질 화합의 대한민국을 예고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7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생명’과 태양의 땅’을 주제로 하여 4막으로 구성된 개회식은 오후 4시30분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시작되는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식전공개행사, 공식행사, 식후공개행사 및 축하공연의 순으로 약 200분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전행사인 1막 ‘꿈을 담아 충북으로’에서는 색색 짙은 꿈이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며, 국민가요와 함께 흥을 춤으로 뽐낸다. 관객과 참여 퍼포먼스와 함께 스타트 치어 리딩팀의 콜라보 공연이 펼쳐진다. 식전공개행사인 2막 ‘중심의 꿈’에서는 충북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뮤지컬과 배틀 퍼포먼스, 서울엑션스쿨의 와이어 액션, 200여명이 참여하는 충주연합합창단

의 하모니, 전문무용단의 춤사위가 화려한 조명과 어우러지며 하나되는 대한민국, 중심의 땅에서 우리 모두의 축제가 시작됨을 알린다. 공식행사는 귀빈 입장을 시작으로 개식통고, 선수단 입장, 국민의례, 개회선언, 환영사, 대회기 게양, 대회사, 기념사, 선수·심판 선서, 주제공연 및 성화점화 순으로 진행된다. 가요곡과 거문고의 연주로 시작되는 성

화점화공연은 공기역학과 기계적 메커니즘을 결합한 ABR 초인이 ‘생명’과 태양의 중앙’으로 형상화되며 절정을 이룬다. 이어 뮤지컬배우인 손준호·김소현 부부의 아름다운 하모니 속에 최종 점화자가 7일간 충주종합운동장에 타오를 성화를 점화한다.

식후공개행사인 4막에서는 멀티미디어 쇼와 대한타포리로 이뤄지는 빛의 축제를 시작으로 축하기수 공연과 뮤지컬 갈라쇼가 관객의 흥을 돋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김국영 육상 한국新·전남 백승호 육상 8연패 도전

광주·전남 누가 뛰나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20일 충북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7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생명중심 충북에서 세계중심 한국으로’라는 구호 아래 17개 시·도 2만5130명의 선수단과 미국, 일본, 독일 등 18개국 1123명의 해외동포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충주를 비롯한 충북 일원에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총 46개의 정식종목과 1개의 시범종목이 펼쳐진다. 광주는 45개 종목에 1344명, 전남은 46

종목 1659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타 시도와 경쟁을 벌인다. 광주는 육상과 양궁 등의 스타플레이어의 선전에 힘입어 종합순위 1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간 탄환’ 김국영(광주시청)의 한국신기록 수립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남자 100m 한국기록(10초07) 보유자인 김국영은 오는 22일 열리는 100m 예선과 결승에서 그간에 흘린 땀을 보상받는다. 육상 세단뛰기의 김덕현과 배찬미(이상 광주시청)는 각각 6연패와 5연패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7회 충남체전 여자 100m허들에서 대회신기록을 달성했던

정혜림(광주시청)도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양궁 여자 기보배와 이특영(이상 광주시청)은 여자일반부 60m와 70m에서 금메달 소식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도도 김성연(광주도시청도공사)은 -70kg급에서 대회 4연패에, 수영 백수연(광주시체육회)도 평영 200m에서 3연패에 도전한다. 종합순위 12위를 목표로 하는 전남은 전국체전 육상 5,000m에서 8연패에 도전하는 백승호 등을 내세워 전남체육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열띤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지난 타이페이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유도 이승수(여수시청)와 양궁 리키브의 이은경(순천대), 한국 신기록을 보유한 배영 50m의 원영준(전남수영연맹) 등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역도 고등부 신비(69kg, 고흥고)는 3관왕, 태권도 대학부 임금별(-53kg, 한체대)은 4연패, 순천시청 정구팀은 3연패를 위해 분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은 또 세계당구월드컵에서 2회 연속 우승을 한 김행직(전남연맹)과 롤러 여자 일반부의 정은채(여수시청)도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박성현 LPGA 신인상 조기 확정

“시즌 전 목표 달성 기뻐”

‘슈퍼루키’ 박성현(24)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이번 시즌 신인상 수상자로 확정됐다. LPGA 투어는 18일 “이번 시즌 5번의 투어 대회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박성현이 산술적으로 올해의 신인상 수상 선수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성현은 현재 신인왕 포인트 1413점으로, 2위 미국 예인철 인(615점)과의 차이가 800점 가까이 난다. 인이 남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다고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점수 차다.

박성현은 한국 선수 가운데 LPGA 신인상을 받은 11번째 선수가 됐다.

지금까지 1998년 박세리, 1999년 김미현, 2001년 한희원, 2004년 안시현, 2006년 이선화, 2009년 신지애, 2011년 서희경, 2012년 유소연, 2015년 김세영, 2016년 전인지 등이 LPGA 신인왕의 주인공이 됐다.

수상이 확정된 후 박성현은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목표 중 하나였던 신인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생애에 오직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이라 정말 특별하다. 이 기회를 살려 더 좋은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7승을 거둬 다승왕과 상



금왕, 최저타수상을 수상하며 KLPGA 무대를 평정한 박성현은 지난해 11월 LPGA 투어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당시 박성현은 “신인왕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메이저 대회인 US여자 오픈에서 생애 첫 LPGA 우승을 거머쥔 데 8월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에서도 우승하며 그야말로 ‘슈퍼루키’라는 말이 걸맞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박성현은 현재 상금 랭킹과 최저타수상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고 올해의 선수상에서도 선두 유소연을 바짝 쫓고 있어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 이후 39년 만에 처음으로 ‘타이를 싸움’도 가능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 시카고 3패 뒤 첫 승...LA 3-2 제압



벼랑 끝에 몰렸던 ‘디펜딩 챔피언’ 시카고 컵스가 3연패 뒤에 첫 승리를 거뒀다.

컵스는 19일 2017 메이저리그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NLCS·7전 4승제) 4차전 홈경기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3-2로 제압했다.

3전 전패에 몰려 4차전까지 패할 경우 월드 시리즈행 티켓에 내줘야 했던 컵스는 반격에 나서며 승부를 5차전으로 몰고 갔다.

컵스는 선발 제이크 아리에타가 반전 드라마의 서막을 썼다. 아리에타는 6.2이닝 동안 안타 3개와 볼넷 5개를 내줬으나 삼진 9개를 곁들여 1점으로 막고 팀을 수렁에서 구해냈다. 타선에서는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20타수 무안타의 부진에 시달리던 하비에르 베에스가 연타석 홈런을 터트리며 김 감독에게 기어올랐다.

5차전은 20일 열린다. 뉴욕 양키스는 휴스턴 에스트로스

2패 뒤 3연승을 거두고 월드 시리즈 진출에 1승만을 남겼다.

양키스는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 시리즈(ALCS·7전 4승제) 5차전에서 휴스턴을 5-0으로 완파했다.

원정에서 1~2차전을 모두 내줬던 양키스는 안방에서 열린 3~5차전을 모두 쓸어들고 전세를 뒤집었다. 양키스는 앞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5전 3승제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2패 뒤 3연승을 거두고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했다.

다나카 마사히로(양키스)와 맬리스 카이클(휴스턴)의 선발 대결로 치러진 이날 맞붙은 양키스의 방향이를 이겨내지 못했다.

다나카는 7이닝을 3피안타 1볼넷 8탈삼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마운드를 완벽하게 지배했다. 반면 1차전에서 7이닝 동안 안타 3개와 볼넷 5개를 내줬으나 삼진 9개를 곁들여 1점으로 막고 팀을 수렁에서 구해냈다. 타선에서는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20타수 무안타의 부진에 시달리던 하비에르 베에스가 연타석 홈런을 터트리며 김 감독에게 기어올랐다.

5차전은 20일 열린다. 뉴욕 양키스는 휴스턴 에스트로스

/연합뉴스

## 2009 안치홍...2017 ‘미칠 선수’는 누구?

막내 안치홍, KS 7차전 추격의 솔로포 ‘KS 최연소’

21일 연습경기 뒤 한국시리즈 최종 명단 30명 확정

KIA 타이거즈가 ‘미칠 선수’를 찾고 있다.

175일의 1위 질주 끝에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을 따낸 KIA는 결전의 날인 25일을 기다리고 있다.

플레이오프가 뜨겁게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시리즈 개막이 다가오면서 KIA 선수단의 분위기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지난 6일 시즌 종료 후 첫 훈련을 시작한 KIA는 11일 라이브 훈련에 이어 14일 첫 연습경기로 한국시리즈를 위한 본격적인 체제로 전환했다. 그리고 17일 첫 야간 훈련 뒤 18일에는 진짜 같은 야간 경기도 치렀다.

14일 주간 경기로 7이닝을 소화했던 KIA는 이날은 오후 6시 30분에 경기를 시작해 정규이닝인 9이닝을 모두 뛰었다.

2군 선수단을 챔피언십필드로 불러 흥팀과 백팀을 구성했고, 실제 경기처럼 라인업 안내 방송도 하고 응원기도 트는 등 긴장감 있는 분위기에서 경기를 진행했다.

양 팀 덕아웃 표정은 조금 달랐다. 백팀은 한국시리즈 활약을 준비하고 있는 주축 선수들로 구성됐고, 흥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엔트리 몇 자리에 도전하는 선수들이 주를 이뤘다.

주전급 선수들에게는 컨디션 점검을 위한 시간이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눈도장을 찍기 위한 필수적인 어필 무대. 김기태 감독과 코칭 스태프에게 ‘미칠 선수’를 찾는 자리이기도 하다.

‘가을 잔치’를 보는 재미 중 하나는 ‘미칠 선수’의 등장이다.

KIA가 ‘V10’을 이뤘던 2009년 한국시리즈에서는 배태량 이종범이 3타수 2안타 3타점의 활약으로 1차전 승리를 이끌고, 1차전 승리에 이어 5차전 완봉승을 신고했던 로페즈가 그리고 7차전 불펜 등판까지 소화하는 등 해줘야 할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막내의 눈부신 활약이 V10의 결정타가 됐다.

신인답지 않은 침착한 수비로 2루 자리를 굳게 지켰던 안치홍은 7차전에서는 3-5로 뒤진 7회말 추격을 알리는 솔로포를 터트리면서 한국시리즈 최연소 홈런 기록을 갈아치웠다. 막내의 야무진 한방에 힘을 낸 선수들은 김원섭의 적시타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고, 9회말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으로 우승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칠 선수’가 승패의 향방을 바꾸고 있다.

동성고 출신의 NC 다이노스 노진혁은

롯데 자이언츠와의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2홈런 포함 4안타 4타점의 활약으로 데일리 MVP가 됐고,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는 노진혁의 동성고 2년 선배인 두산 베어스 최주환이 잠실 담장을 넘기는 역전 만루포로 데일리 MVP가 됐다. NC 김준완도 스크류스의 역전 그랜드슬램에 몰렸지만 미친 수비로 팀에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를 안겨줬다.

‘미칠 선수’의 등장을 기다리는 KIA는 18일에 이어 19일에도 야간 흥행전을 갖고 옥서 가리기에 나섰다. KIA는 20일 휴식 뒤 21일 마지막 연습 경기를 통해 한국시리즈에서 펼칠 최종 30인의 명단을 확정하고, 합숙 훈련에 들어간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지난 18일 챔피언십필드에서 진행된 KIA 타이거즈의 흥행전에서 흥팀 선발로 나온 핵터가 타자 안치홍의 타구를 지켜보고 있다.

